

# 목에 생기는 중풍 '경추척수증'...놔두면 하반신 마비된다

초기에 목 디스크와 유사...증상 서서히 나빠져

중증 환자는 CT나 MRI 이용한 정밀검사 필수

척수증은 중추신경의 일부분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척수는 목(경추)과 등(흉추), 허리(요추) 일부에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척수 신경이 눌리면 발병한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가 목 통증, 손가락 부위 저림이나 통증을 일으키는데 비해 척수증은 보다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척수증 증상은 손과 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마치 머리에 중풍이 생겼을 때 마비가 오는 것처럼 손이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 대부분의 환자는 마비가 오면 뇌에 이상이 생겨 뇌경색 또는 뇌졸중 같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줄 알지만, 경추 협착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척수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이 정상인보다 좁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인대가 커지고 불필요한 뼈가 자라서 척추관을 누르기도 한다. 발병 초기에는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

이 발생하고 팔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목 디스크 초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 이로 인해 경추 척수증 환자들이 목 디스크가 발병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질환은 증상에서 차이가 있다. 목 디스크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을 반복한다. 반면 경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며, 시간이 지나 길음길이까지 불안정해지므로 조기에 진단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될 때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받는다. 다만 엑스레이 검사로는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중증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정밀검사가 필수다. 척추관은 척추 속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다.

목에 있는 신경은 팔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연결돼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감각신경이 압박을 받아 팔이나 손



감각이 둔해지고 보행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근력이 떨어지고, 배뇨장애, 심한 경우 하반신 마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의심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예후가 좋다.

강경중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말초신경이 있는 허리 요추관 협착증

과 달리 경추는 신경이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티백 우려낸 차 한잔,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마시는 셈”



티백으로 우려낸 차(茶) 한잔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CNN에 따르면 캐나다 맥길대 연

구진은 논문에서 4개의 티백 제품을 끓는 물에 넣어 분석한 결과, 티백 하나에서 116억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31억개 나

티백 하나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 116억개 나와

인체상 위험 아직 확인 안 돼...추가 연구 필요

노 플라스틱 조각이 방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음식이나 음료 등에서 발견된 검출 양보다 수천 배 더 많은 것이다. 많은 티백 업체들은 제품을 만들 때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티백에서 찻잎을 제거한 뒤 티백으로 차를 끓이는 과정을 따라했다. CNN은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다양한 음식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했지

만, 차를 끓이거나 다른 뜨거운 음료를 만드는 동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마신 것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맥길대 연구진은 이 분야에 대한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주 신용카드 무게에 달하는 평균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공개한 수돗물 및 용기에 든 생수(bottled water)에 포함된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수준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가 제한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 조각과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WHO 연구원은 "미세 플라스틱은 식수를 포함해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